

정치철학, 인간의 정치현상 연구하는 '마스터 사이언스'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구조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
비트겐슈타인 이후 인간을 규제하는 '말의 힘'에 주목해

남경희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정치 혐오증'이 널리 퍼지면서 인간의 정치적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언어를 제거할 수 없다면, 인간은 정치적 관계를 떠날 수 없다. 인터넷 공간의 등장과 그 영향력은 인간의 삶이 언어에 기대고 있음을, 인간에게 정치적 관계가 필연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정치철학이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이 정치적 관계의 심층성과 전면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은 인간의 정치현상에 관한 철학적 연구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통찰한 대로 정치적 관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양식이었다. 인간은 폴리스적(정치적) 동물이고, 이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인간성이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철학자들에게 정치철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구조에 관한 탐구로서 철학의 중심을 차지했다.

근대 이후 윤리학에 종속된 정치철학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인 《폴리테이아》(국가)가 우선적으로는 정치철학적인 저서이며,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그는 존재론·인식론·미학·교육론·윤리학 등을 논의했다. 그의 최후의 대저인 《법률》 역시 정치철학적인 저서였다. 플라톤과 함께 서양철학사에 풍요한 철학적 사유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샘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철학은 '마스터 사이언스'라 갈파하며, 철학, 나아가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정치철학의 근본학으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근대에 들어서는 이런 위상에 변화가 온다. 근대 이후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트·칸트·프레게·하이데거 등의 주요 관심사는 존재론·

인식론·논리학 등이었다. 근대인들에게 정치적 관계란 인간이 처한 여러 국면들 중에서도 2차적인 것으로, 정치철학은 윤리학에 종속적인 것으로 자리매김돼왔다. 정치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이상, 존재 이유 등을 다루는 윤리학이나 인간본성론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정치세계보다 외연이 넓고 근원적인 존재 자체나 진상 등에 관한 학으로서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에 의해 정초돼야 할 것으로 여겨왔다. 정치철학은 존재론이나 인식론 등의 순수 이론철학에 비해서는 응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적어도 근대 이후의 믿음이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이런 인식은 더욱 심화돼 규범학으로서 정치철학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런 태도는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흔히 존 롤즈의 《정의론》 이후 규범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이론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한 재해석과 평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저서는 분석철학·언어철학·의미론에 관한 저서다. 그는 이 저서에서 존재, 인식, 언어의 기능, 철학의 성격 등에 관한 서구 전통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들은 상당히 심오하며 폭넓은 정치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의 비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철학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정치적 관계의 근본은 언어 통한 의사소통

우리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이상적 인간의 모습은 존재나 진리를 정관하는 인식적 존재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서, 이 관계의 양식은 언어를 통한 행위의 모습으로 이뤄진다. 인식·학문·문화·의사소통 등 모든 인간 특유의 활동에서 기초이자 핵심은 언어적 활동이다. 인간의 삶이 타인이나 외계와의 관계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의 연속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행위의 모습이 언어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인간은 자연상태에서와는 달리 언어의 규제, 말의 힘의 규제를 받는다. 인간 삶의 특유성은 언어활동에 있으며, 인간의 삶은 언어게임의 장에서, 개념들의 세계에서 이뤄진다. 이런 언어적 활동의 과정에서 존재·진리·세계·가치·마음 등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개념들이 생성된다.

전통적으로 언어의 1차적 기능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기술·전달·보고하거나 인간의 사유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 여겨왔다. 이런 언어관이나 인식관은 객관적 존재들이나 진리가 저기 저편에 인식되고 기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서구철학의 기본적 신조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그런 신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언어와 인식에 대해서도 전혀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존재나 진리란 발견되기보다는 발명되거나 구성되는 것이고, 인식은 인간적 실천의 한 양식이며, 언어적 활동은 이런 존재의 구성이나 인식적 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인간의 근원적 행위방식이다.

정치성의 두 핵심요소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규제하는 힘의 존재다.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 함은 자신과 동류의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나아가 바로 그 관계로 인해 어떤 힘의 규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다. 전자를 사회적 관계라 하는데, 그 사회적 관계의 모습을 흔히 협동과 분업, 시장적 교환, 의사소통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그것은 단지 표층의 모습일 뿐이다. 정치적 관계의 근원적 모습은 타인들과 언어를 주고 받으며 의사소통하면서 내적인 관계, 다자적(多者的)인 존재에서 일자적(一者的)인 존재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내면적 세계와 자아상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인간관계의 매개체로서 언어의 힘

정치적 관계에 들어섬으로써 인간이 규제받게 되는 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치적 관계에서 규제를 가하는 힘을 권력·정치권력·국가권력이라 하는데, 이 권력의 실체에 관해서 역시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의 정치상태는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구축한 세계라는 점에서,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물리적이거나 인과적 힘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 힘은 말의 힘이다. 말이 그런 새로운 힘의 연원이 될 수 있는 한 이유는 객관적 규정력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객관적 세계를 구축하고 타자와 객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언어가 인간을 규제하는 근원적 힘, 권력자로서 역할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인간 상호간의 관계의 매개체기 때문이다. 경제적 활동에서 화폐는 가치의 측정과 교환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했으나, 점차 경제활동이 화폐의 논리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주체의 지위를 찬탈한다. 언어는 처음에는 단지 인간의 정치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의 역할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경우와 같이 언어는 매개자로서 객관성의 권위를 자임해 인간의 삶을 언어의 논리에 의해 주재함으로써 주체의 지위를 차지해 버리고 만다.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주도적이고 포괄적인 힘은 언어의 힘이다. 이런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의 근원적인 리바이어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권력, 사법적 힘 등은 모두 이런 언어의 규제력을 전제할 때만 유효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정치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언어적 활동이 인간에 특유한 삶의 양식이라 한다면,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본성, 학문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활동이 정치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활동도 실천, 더욱이 정치공간에서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실천의 한 양식이라 한다면, 우리는 존재론과 정치철학간의 관계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존재론이 정치철학을 근거짓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정치철학이 존재론, 형이상학을 근거짓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철학을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에 관한 학으로서 정치존재론이라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 부각시킨 가상공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인간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에텐의 아담과 이브, 단군 왕검 등 시원의 인간들, 수도원의 수도자들, 로빈슨 크루소 등 자이나 타의로 정치적 관계를 떠난 인간들에 대한 상상은 인간의 정치성이 선택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언어를 제거할 수 없다면, 인간은 정치적 관계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시원적 인간의 모습이 현재 정치적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며, 이런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현재적 인간에 기생적임을 간취하게 한다.

20세기 후반에 시작한 정보통신 혁명은 인터넷에 이르러 절정을 향하고 있다. 이제 세계적인 의사소통의 공간, 그것이 우리 삶의 세계가 돼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구축되는 이런 공간을 흔히 가상공간이라 하나, 이런 표현은 그 공간이 가짜이거나 허구적 상상의 것이라는 잘못된 함의를 담고 있다. 그 공간은 오히려 인간의 삶에 우연적이었던 요소들이 완전히 정화돼, 인간에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실제성을 지니는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공간보다 더 실제적인 공간이다. 그것은 언어로 구축된 공간이다.

인터넷 공간의 등장과 그것이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인간의 삶이 언어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간에게 정치적 관계가 필연임을 더욱 확연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인간은 타자와의 언어적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도,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최근 정치철학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서 정치적 관계, 언어적 관계의 심증성과 전면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동류의 타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스스로를 형성해가고,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마련하며, 나아가 세계를 구성하고, 인간적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합의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적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정보통신 사회의 도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언어적 존재임을, 그런 한에서 정치적인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말의 질서에 다름 아님을 증거해주고 있다.●